

# SERI 경제 포커스

2013. 5. 14. (제418호)

## 글로벌 에너지 패권의 이동: 중동에서 미주로

### 목차

FOCUS	1
1. 글로벌 에너지 패권의 변화	
2. 미주 에너지 개발의 3大 경쟁력	
3. 시사점	
주간 금융지표	13
경제일지	14
경제통계	17

작 성: 김화년 수석연구원  
(hnkim@seri.org)  
02-3780-8254

## < Executive Summary >

미국에서는 '셰일혁명(Shale Revolution)'으로 불리는 비전통에너지(Unconventional Energy) 개발이 확대되며 석유 및 가스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에너지기구(IEA)는 빠르면 2017년부터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1위 석유 생산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중남미 등 미주 대륙의 에너지 생산도 증가할 것이다. 캐나다는 오일샌드(Oil Sand) 등 비전통에너지 개발로 2011~2030년 석유 생산량이 연간 2.4% 증가할 전망이다. 중남미도 셰일가스 등 미개발 자원이 많아 에너지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브라질은 해양석유 개발로 2030년까지 석유 생산이 연간 4.9% 증가하여 세계 6위 산유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이에 글로벌 에너지 패권이 점진적으로 중동에서 미주(북미+중남미)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OPEC이 글로벌 에너지 공급의 중심이지만, 점차 중동의 영향력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에너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데 반해, 중동의 석유 생산은 소폭 증가에 수출 여력이 점차 감소하여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약화될 것이다. 반면, 북미와 중남미의 석유 생산 증가와 에너지 효율성 향상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는 미주의 석유 수출 여력이 커질 것이다. 특히 미국이 2020년에는 천연가스 순수출국, 2030년경에는 석유의 순수출국이 되면서 역내 에너지 자급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에너지 패권이 미주로 이동하는 더 큰 이유는 신기술이 필요한 ① 비전통에너지, ② 해양석유, ③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3가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미주는 셰일가스, 오일샌드 등 비전통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이다. 미국은 셰일가스와 타이트오일, 캐나다는 오일샌드, 중남미는 베네수엘라 오리노코 지역의 초중질유(Extra Heavy Oil)가 미주 비전통에너지 개발의 중심이 될 것이다. 또한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는 세계 10대 셰일가스 매장국으로 개발 잠재력이 크다. 둘째, 미주는 해양석유 매장량이 풍부하고 시추·안전 등 개발기술도 우위에 있다. 미국의 5개 주와 멕시코에 걸쳐 있는 멕시코만의 해양석유와 브라질 연안 암염하층(Pre-salt Layer)의 심해유전 개발 잠재력이 크다. 알래스카(북극)에서도 석유 개발이 점차 진행될 것이다. 셋째, 미주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어 석유자원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재정위기를 겪으며 부진에 빠진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투자 여력이 풍부하다. 또한 브라질과 미국은 에탄올 등 바이오연료 생산 강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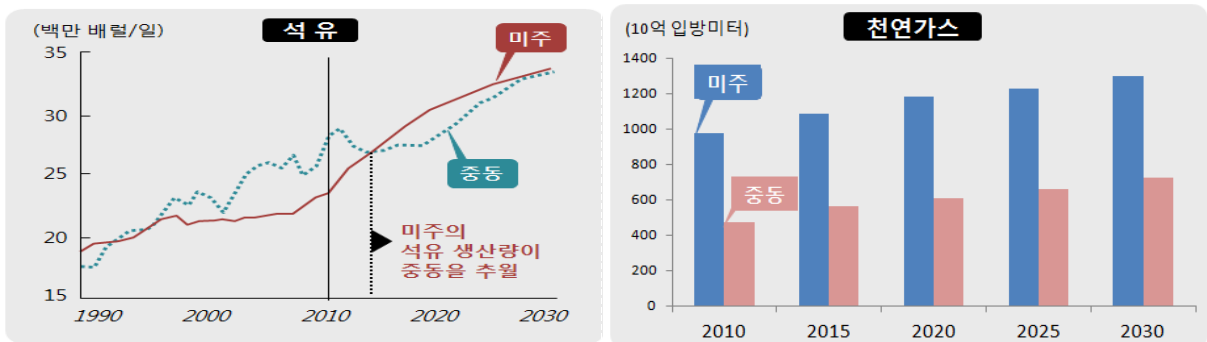
이에 따라 향후 생산 증가가 예상되는 미주의 비전통에너지, 해양석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서 파생되는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미주에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해 중장기적으로 중동에 집중되어 있는 에너지 수입처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미주의 석유원료 가격이 하락하여 석유화학, 철강 등 제조업에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면 한국 산업에 위협이 될 것이다. 따라서 미주에 대한 직접투자를 통해 값싼 원료를 확보하고, 신규 개발 수요가 많은 중남미 국가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 1. 글로벌 에너지 패권의 변화

## 글로벌 에너지 패권이 점진적으로 중동에서 미주로 이동할 전망

- 북미와 중남미의 석유 생산 증가와 에너지 효율성 향상으로 인해 글로벌 에너지 패권이 중장기적으로 중동에서 미주(북미+중남미)로 이동할 전망
  - 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OPEC이 글로벌 에너지 공급의 중심이지만, 점차 중동의 영향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기술 발전 등으로 미주의 에너지 생산량이 증가하고 수출 여력도 커지면서 글로벌 에너지 패권이 점차 중동에서 미주로 이동
  - BP는 빠르면 2010년대 중반부터 미주의 석유 생산량이 중동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

미주와 중동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 비교



자료: BP (2013). BP Energy Outlook 2013.

자료: IEA (2012). World Energy Outlook 2012.

- [미국] '셰일혁명(Shale Revolution)'으로 불리는 비전통에너지(Unconventional Energy) 개발이 확대되며 미국의 석유 및 가스 생산이 급증
  - 비전통에너지인 셰일가스(Shale Gas), 타이트오일(Light Tight Oil)<sup>1)</sup>의 미국 내 생산이 2010~2012년 동안 각각 67.3%, 143.9% 증가<sup>2)</sup>
    - 미국 셰일가스 생산량(입방피트): 4조 8,624억(2010년) → 8조 1,346억(2012년)
    - 미국 타이트오일 생산량(배럴/일): 82만(2010년) → 200만(2012년)

<sup>1)</sup> 셰일층에서 수압파쇄 등 셰일가스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굴하는 경질유(Light)로 통상 타이트오일로 칭함

<sup>2)</sup> EIA (2013). Annual Energy Outlook.

- 세계에너지기구(IEA)는 이르면 2017년부터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1위 석유 생산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sup>3)</sup>
  - 2020년 미국은 하루에 1,10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해 세계 1위 산유국이 될 전망<sup>4)</sup>, 이는 사우디아라비아(1,060만 배럴)의 생산량을 상회하는 수준
  - BP는 미국의 2013년 석유액(Oil Liquids)<sup>5)</sup> 생산량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추월해 세계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sup>6)</sup>
  - 특히 미국이 2020년에는 천연가스 순수출국, 2030년경에는 석유 순수출국이 되면서 역내 에너지 자급도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
- [캐나다] 미국뿐 아니라 북미의 캐나다도 오일샌드(Oil Sand) 등의 비전통에너지 개발로 석유 생산이 증가할 전망
  - 캐나다는 오일샌드의 생산 증가로 인해 2011~2030년 석유 생산량이 연간 2.4% 증가할 전망
  - 오일샌드는 원유를 함유한 모래나 암석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출기술이 발달하면서 개발이 본격화되었으며 캐나다에서는 앨버타 주에 집중 매장
- [중남미] 셰일가스 등 미개발 석유자원이 많은 중남미도 생산 증가가 예상
  - 브라질은 해양석유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연간 4.9% 증산하여 세계 6위 산유국으로 부상할 전망
  - 베네수엘라는 오리노코 지역의 초중질유를 중심으로 증산할 가능성<sup>7)</sup>
    - 초중질유 생산량(백만 배럴/일): 0.6(2011년) → 1.4(2020년) → 1.8(2030년)
    - 베네수엘라의 가스 생산은 2010~2030년까지 연간 4.9% 증가할 전망

<sup>3)</sup> U.S. to Be World's Top Oil Producer in 5 Years, Report Says. (2012.11.12.). *New York Times*.

<sup>4)</sup> IEA (2012). *World Energy Outlook 2012*.

<sup>5)</sup> 원유(Crude Oil), NGLs(천연가스액), 바이오연료(Biofuel), 가스 등에서 추출하는 석유액(Liquids from Gas)과 석탄에서 추출하는 석유액(Liquids from Coal) 등을 포함(가공품인 휘발유 등 석유제품이 아닌 원료들)

<sup>6)</sup> BP (2013). *BP Energy Outlook 2030*.

<sup>7)</sup> 현재 전망은 2012년 11월에 발표된 IEA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2013년 3월 차베스 前 대통령 사망 이후 중장기적으로 투자환경이 개선되면서 현재 전망치보다 증가할 가능성

### 미주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 전망

(단위: 백만 배럴/일, 10억 입방미터)

구분	석유					천연가스				
	2011	2015	2020	2025	2030	2010	2015	2020	2025	2030
미국	8.1	10.0	11.1	10.9	10.2	604	679	747	765	784
캐나다	3.5	4.3	4.9	5.4	5.9	160	165	171	169	174
중남미	10.3	10.8	11.7	12.6	13.1	213	242	264	295	337
- 브라질	2.2	2.8	4.0	5.0	5.5	15	21	32	49	69
- 베네수엘라	2.7	2.6	2.7	2.9	3.2	24	30	37	44	63
- 멕시코	2.9	2.7	2.6	2.6	2.6	50	47	51	57	66
미주 전체	21.9	25.1	27.7	28.9	29.2	977	1,086	1,182	1,229	1,295

주: 멕시코는 경제적으로 미국, 캐나다와 함께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회원국이기 때문에 북미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지역적·문화적 특성상 중남미로 분류  
 자료: IEA (2012). World Energy Outlook 2012.

### 신기술이 필요한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것이 미주의 경쟁력

□ 탐사·신채굴 기술, 신재생에너지 효율화 기술 등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주의 에너지 기술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에너지 패권이 미주로 이동

- 미주는 기술 발달로 비전통에너지, 심해의 해양석유, 신재생에너지 등의 생산을 늘릴 수 있게 되었고, 효율성이 향상되어 에너지 소비도 감소
  - 미주의 석유 소비량은 자동차 연료 효율성 향상 등으로 인해 2011년 2,770만 배럴/일에서 2030년에는 2,520만 배럴/일로 감소할 전망<sup>8)</sup>
- 반면, 중동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데 비해 석유 생산이 소폭 증가에 그쳐<sup>9)</sup> 수출 여력이 점차 감소하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약화
  - 2030년까지 석유 생산량이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sup>10)</sup>되는 이라크를 제외하면 중동은 석유 생산이 오히려 감소할 전망

□ 따라서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비전통에너지, 해양석유, 신재생에너지 등 미주 에너지 개발의 3가지 경쟁력을 통해 에너지 패권 변화의 가능성을 점검

<sup>8)</sup> IEA (2012). World Energy Outlook 2012.

<sup>9)</sup> 중동의 2011~2030년 연간 석유 생산 증가율은 0.8%에 그칠 전망(IEA (2012). World Energy Outlook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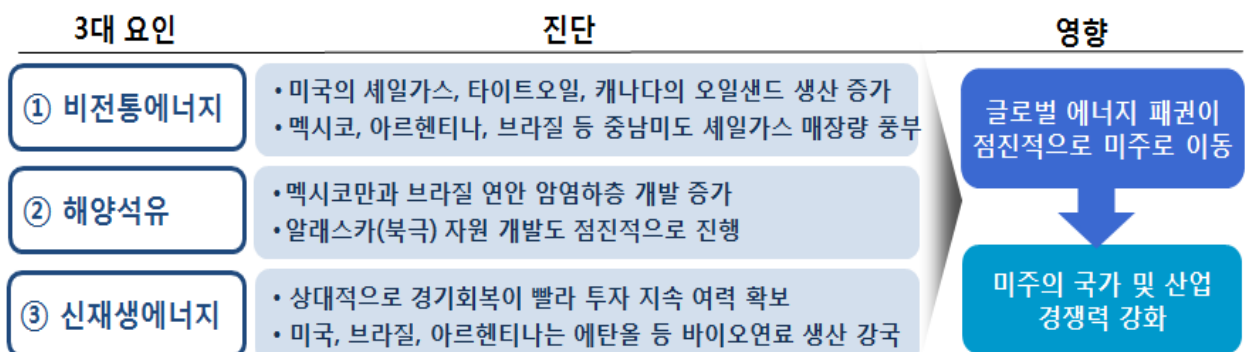
<sup>10)</sup> 이라크의 석유 생산량(백만 배럴/일): 2.7(2011년) → 6.1(2020년) → 7.5(2030년)

## 2. 미주 에너지 개발의 3대 경쟁력

미주는 비전통에너지, 해양석유,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경쟁력 보유

- [비전통에너지] 미주는 셰일가스, 오일샌드 등 비전통에너지 개발에 가장 적극적이며, 경쟁력도 확보
  - 미국의 셰일가스와 타이트오일, 캐나다의 오일샌드, 중남미 베네수엘라의 초중질유(Extra Heavy Oil)가 미주 비전통에너지 개발의 중심이 될 전망
  -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는 세계 10대 셰일가스 매장국
- [해양석유] 미주는 해양석유 매장량이 풍부하고 시추·안전 등 개발기술도 우위
  - 미국의 5개 주와 멕시코에 걸쳐 있는 멕시코만의 해양석유와 브라질 연안 암염하층(Pre-salt Layer)의 심해유전 개발의 잠재력이 큼
- [신재생에너지] 미주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활발히 진행하여 석유자원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소할 전망
  - 미국은 재정위기를 겪으며 부진에 빠진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투자 여력이 풍부
  - 풍력, 태양광 등 전력 생산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외에도 브라질과 미국은 바이오연료 생산 강국

미주 에너지 개발의 3대 경쟁력과 진단



① 비전통에너지 개발

- ▶ 미국, 캐나다의 셰일가스 등 비전통가스, 미국의 타이트오일, 캐나다의 오일샌드를 중심으로 미주가 비전통에너지 개발을 선도
- 세계 10대 셰일가스 매장국 중 미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5개국이 미주에 위치

□ 미주에는 전 세계 셰일가스의 47.7%가 매장되어 있으며, 10대 셰일가스 매장국 중 5개국도 위치

- 셰일가스 주요 매장국 중 북미에는 미국(2위), 캐나다(7위)가, 중남미에는 아르헨티나(3위), 멕시코(4위), 브라질(10위)이 있어 미주의 개발 잠재력이 큼<sup>11)</sup>
- 미주에서는 전체 가스 중 셰일가스 등 비전통가스의 생산 비중이 증가할 전망
  - 2020년 비전통가스 생산 비중: 미국 67%<sup>12)</sup>, 캐나다 57%, 멕시코 12%
- 비전통가스 생산 증가로 인해 2020년 미국은 90억 입방미터, 캐나다는 550억 입방미터의 가스 순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셰일가스 매장량 순위

(단위: 조 입방미터)

순위	국가명	매장량
1	중국	36.1
2	미국	24.4
3	아르헨티나	21.9
4	멕시코	19.3
5	남아공	13.7
6	호주	11.2
7	캐나다	11.0
8	리비아	8.2
9	알제리	6.5
10	브라질	6.4
11	폴란드	5.3
12	프랑스	5.1

자료: EIA (2011). World Shale Gas Resources.

주요국 비전통가스 생산 전망

(단위: 10억 입방미터, %)

구분	2010	2020	2035
미국 전체	609	726	821
- 비전통가스 (비중)	358 (59)	489 (67)	580 (71)
캐나다 전체	160	174	177
- 비전통가스 (비중)	62 (39)	100 (57)	119 (67)
멕시코 전체	50	52	87
- 비전통가스 (비중)	2 (3)	6 (12)	37 (43)

자료: IEA (2012). Golden Rules for a Golden Age of Gas.

□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의 2012~2035년 비전통가스 개발을 위한 누적 투자액이 1조 5,730억달러(2010년 달러가치 기준)에 달할 전망<sup>13)</sup>

<sup>11)</sup> 러시아에도 셰일가스 매장량이 풍부한 것으로 추정되나 아직까지 확인매장량을 입증하지 못함

<sup>12)</sup> EIA는 2030년 미국의 비전통가스 생산 비중을 75.6%로 전망 (EIA (2013). Annual Energy Outlook.)

- 2012~2035년까지 비전통가스 개발을 위해 미국은 1조 3,080억달러, 캐나다는 2,180억달러, 멕시코는 470억달러를 투자할 예정<sup>14)</sup>

□ 캐나다는 오일샌드 개발을 주도하고, 미국은 타이트오일 개발을 주도하여 북미의 비전통석유 생산량이 급증할 전망

- 캐나다에는 전 세계 오일샌드의 71.6%(1,736억 배럴)가 매장<sup>15)</sup>되어 있으며, 오일샌드 생산량이 2030년까지 2배 이상 증가할 전망

· 오일샌드 생산량(백만 배럴/일): 1.6(2011년) → 2.9(2020년) → 3.8(2030년)<sup>16)</sup>

**글로벌 석유사가 주목하는 캐나다 오일샌드 개발**

▷ 엑손모빌이나 로열더치셸 등 미국의 정유 대기업들은 물론이고 노르웨이의 스탕오일도 캐나다 앨버타 주 오일샌드 개발에 투자

- 한국도 한국석유공사가 인수한 캐나다 하베스트사가 오일샌드 개발을 진행

- 미국의 타이트오일 생산량은 2011년 120만 배럴/일에서 2020년에는 280만 배럴/일로 증가하고, 2025년에는 전체 원유(Crude Oil) 중 생산 비중이 38.7%로 상승할 전망<sup>17)</sup>

**세일가스보다 중요성이 더 커지는 타이트오일**

▷ 유사한 채굴기술의 사용, 가격차·용도차 등으로 인해 세일가스 생산보다 타이트오일(통상 세일오일로 혼용)의 생산이 더 크게 증가할 전망

- 가격이 크게 하락한 천연가스에 비해 유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굴기술이 유사한 타이트오일 생산이 더 빠르고 크게 증가

- 타이트오일의 생산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국제유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

(자료: 浜田基彦 (2013. 5.). “逆オイルショック” に備える 供給が増えれば相場に影響も.” 『日経 Automotive Technology』, 5월호.)

<sup>13)</sup> IEA (2012). World Energy Outlook 2012.

<sup>14)</sup> 동기간 전체 가스 중 비전통가스 개발을 위한 투자 비중: 미국 79.4%, 캐나다 74.7%, 멕시코 33.6%

<sup>15)</sup> 기획재정부 (2012.3.16.). "비전통 에너지 자원의 전망과 시사점". 보도참고자료.

<sup>16)</sup> IEA (2012). World Energy Outlook 2012.

<sup>17)</sup> EIA (2013). Annual Energy Outlook.

## ② 해양석유 개발

▶ 멕시코만(미국+멕시코)과 브라질 연안은 해양석유 개발 잠재력이 풍부  
 - 2006년 알래스카 송유관 유출 사고, 2010년 멕시코만 원유시추 사고 등으로 인해 현재 미국의 해양개발은 부진하지만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회복될 전망

□ 미주는 2010년 전 세계 해양(Offshore)석유 생산의 39%를 담당했으며, 향후 중남미에 해양 개발을 위한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

- 2010년 전 세계 해양석유의 14%는 미국, 9%는 캐나다와 멕시코, 16%는 중남미에서 생산<sup>18)</sup>

- 2010~2015년 미주의 해양개발을 위한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은 총 4,169억달러로, 이 중 2,829억달러를 중남미에 투자

· 2015년에는 중남미의 해양 유정(Wells)도 2010년 대비 86.3% 증가한 1,416개가 있어 타 지역보다 해양개발이 활발히 진행될 전망

해양개발 자본지출 전망

(단위: 억달러)

구분	2010	2015	'10~'15 누적액
미주	491	865	4,169
- 미국	81	230	942
- 캐나다, 멕시코	43	92	398
- 중남미	367	543	2,829
아시아, 태평양	362	616	2,974
아프리카, 지중해	272	573	2,666
북해	247	355	1,833
전 세계	1,372	2,409	1조1,642

해양개발 시추가 계획된 油井 수

(단위: 개, %)

구분	2010	2015	'10~'15 증가율
미주	1,004	1,764	75.7
- 미국	222	314	41.4
- 캐나다, 멕시코	22	34	54.5
- 중남미	760	1,416	86.3
아시아, 태평양	520	604	16.2
아프리카, 지중해	440	844	91.8
북해	636	732	15.1
총계	2,600	3,944	51.7

자료: Quest Offshore (2011). The State of the Offshore U.S. Oil and Gas Industry.

□ 중남미에서는 브라질 연안의 심해유전을 중심으로 석유 개발이 진행

- 브라질 연안의 암염하층에 대규모 매장되어 있는 석유가 발견되어 중남미의 해양 석유 생산량이 증가할 전망

<sup>18)</sup> Quest Offshore (2011). The State of the Offshore U.S. Oil and Gas Industry.

- 브라질 암염하층의 매장량은 최대 800억 배럴로 추정되며, 국영석유사 페트로브라스는 2020년까지 암염하층에서 210만 배럴/일을 생산할 계획
- 멕시코 국영석유사 페멕스(PEMEX)는 멕시코만(멕시코 수역)의 석유 개발을 위해 2002~2011년 36.8억달러를 투자하는 등 멕시코의 해양 석유 생산량도 점차 증가할 전망<sup>19)</sup>

**해양개발을 추진하는 브라질의 페트로브라스(Petrobras)**

- ▷ 브라질의 국영석유사인 페트로브라스는 연안의 암염하층을 개발하는 등 브라질 석유 생산의 93%를 차지하는 해양개발 주도 기업
  - 페트로브라스는 2012~2016년까지 해양 암염하층의 석유개발을 위해 약 60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
  - 2012년 페트로브라스의 석유·가스 산업 투자 규모(473억달러)는 페트로차이나(480억달러)에 이어 세계 2위 (3위는 엑슨모빌)

(자료: IEA (2012). World Energy Outlook 2012.)

- 미국은 해양개발 사고로 인해 해양석유 생산이 당분간 위축되겠지만 기술개발과 규제완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생산이 증가할 전망
  - 2006년 BP의 알래스카 송유관 유출, 2010년 BP의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 등으로 인해 미국의 해양개발이 위축되어 석유 생산량 감소
  - 미국 멕시코만의 유정 수: 458개(2008년) → 185개(2011년)
  - 그러나 멕시코만에는 정유시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석유 개발의 경제성이 있으며, 시추 안전 기술이 발달되면서 해양 생산이 증가할 전망
  - 2010~2015년 멕시코만의 유정 수는 41.4% 증가할 전망
  - 미국의 해양 석유 생산량(백만 배럴/일): 1.43(2011년) → 1.69(2020년)<sup>20)</sup>
  - 2012년 로열더치셸이 미국정부로부터 알래스카 북부 연안 추크치 해와 뷰포트 해 광구의 시추 허가를 받는 등 알래스카 해양개발도 점진적으로 진행될 전망

<sup>19)</sup> Abraham, K.(2012). Mexico works on rebuilding its crude oil output. World Oil. Vol. 233, No. 8, August 2012.

<sup>20)</sup> EIA (2013). Annual Energy Outlook.

### ③ 신재생에너지 개발

- ▶ 유럽은 재정위기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된 반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투자 여건이 개선되며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확대될 전망
- 미국과 브라질은 에탄올 생산의 세계 1, 2위국으로 바이오연료 부문에서도 강국

- 미국은 상대적으로 경기회복 속도가 빠르고, 중남미는 주목받는 신흥국이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생산이 증가할 전망
- 2006~2012년 미주의 신재생에너지 투자액은 총 5,293억달러로 동기간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투자의 27.9%를 차지
  - 2006~2012년 미주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중 비중: 풍력 41.2%, 태양광 24.8%
- 재정위기로 인해 유럽의 투자가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경기가 회복 기조에 있는 미국의 헤게모니가 강화될 전망

#### 미주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단위: 억달러)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미주 전체	509	793	735	622	830	1,009	795
- 풍력	150	282	322	260	407	364	394
- 태양광	56	126	142	122	169	423	276
- 기타	302	385	271	240	254	222	125

자료: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 미주에서는 2010~2030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이 연평균 2.1% 증가할 전망
- 미국의 2010~2030년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은 연평균 2.6% 증가하고, 풍력의 가용량(Capacity)은 2010~2020년 2배 이상 증가할 전망<sup>21)</sup>
  - 미국의 풍력 가용량(기가와트): 47(2010년) → 93(2020년)
- 브라질은 2010년에 이미 전력 생산의 85%를 신재생에너지가 담당할 정도로 신재생에너지 강국

<sup>21)</sup> IEA (2012). World Energy Outlook 2012.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량 전망

(단위: 조 와트시)

구분	2010	2015	2020	2025	2030
미주	1,614	1,971	2,297	2,631	2,972
- 미국	454	600	750	909	1,074
- 브라질	437	514	585	646	701
유럽	1,196	1,453	1,698	1,936	2,180

자료: IEA (2012). World Energy Outlook 2012.

□ 미국과 브라질 등 미주의 2012년 에탄올 생산은 전 세계의 75.3%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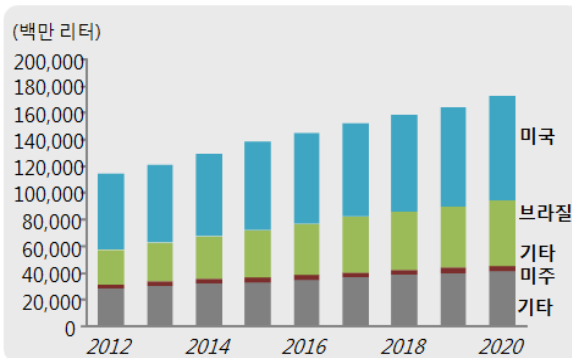
- 미국의 2012년 에탄올 생산량은 565.5억 리터로 세계 1위, 브라질의 생산량은 257.6억 리터로 세계 2위

· 2020년 에탄올 생산량 전망(억 리터): 미국 743.5, 브라질 45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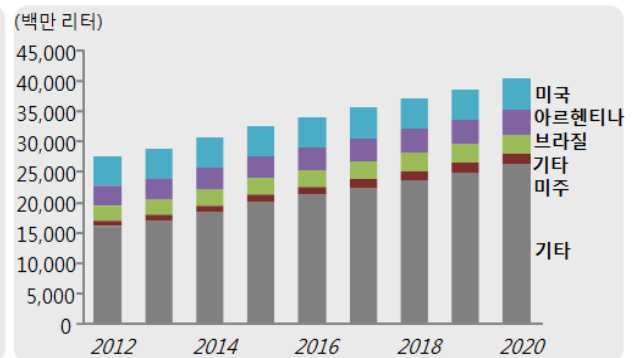
- 바이오디젤은 아르헨티나가 중남미에서 1위 생산국

· 2020년 바이오디젤 생산량(억 리터): 미국 47.8, 아르헨티나 31.7, 브라질 25.9

에탄올 생산량 전망



바이오디젤 생산량 전망



자료: OECD-FAO (2012). Agricultural Outlook 2012-2021.

**에탄올 생산원료: 미국의 옥수수, 브라질의 사탕수수**

- ▷ 미국은 에탄올 생산을 위해 주로 옥수수를 이용하고 브라질은 사탕수수를 이용
  - 미국과 브라질은 에탄올 등 바이오연료를 휘발유에 혼유해 사용하도록 하는 신재생연료 의무사용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를 시행
  - 옥수수는 곡물가격, 사탕수수는 설탕가격 불안의 원인이 되어 전 세계 식품가격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측면에서 두 원료 모두 비난을 받음

### 3. 시사점

#### 에너지 시장의 패권 변화는 에너지 관련 투자 및 비즈니스 기회

□ 미주의 비전통에너지, 해양석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서 파생되는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

- 비전통에너지 개발에는 고성능 철강재 등이 필요하고, 해양석유 개발에는 드릴십, FPSO 등 부유식 시추·이동설비가 필요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는 풍력모터 등이 유망
- 신재생에너지와 수송 부문의 에너지 절감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미국 등 선진국과의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격차를 좁히고 경쟁력도 강화
  - 2010~2035년 자동차 연료 경제성 향상으로 절감되는 누적 석유량: 미국 약 75억 배럴(oil equivalent), EU과 중국은 각각 약 43억 배럴<sup>22)</sup>

□ 미주에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해 에너지 수입처를 다변화

-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석유·가스 수출규제가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에너지 자원을 한국으로 수입하기도 쉬워질 것으로 예상
  - 2015년 파나마운하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대형 LNG선이 통과할 수 있어 북미 동부 지역에서 동아시아로의 운송거리가 단축
- 따라서 현재의 중동 중심 에너지 수입 환경에서 벗어나 글로벌 에너지 패권이 이동할 미주의 석유산업에 대한 투자와 수입 환경을 구축할 필요

#### 북미 셰일가스의 한국 수입 계획

- ▷ 한국가스공사는 미국과 캐나다의 셰일가스를 액화천연가스(LNG)로 도입할 계획
- 미국 사빈패스(Sabine Pass)의 셰일가스를 2017년부터 20년 동안 연간 350만 톤 수입할 계획
  - 캐나다의 셰일가스 개발 허가를 받아 이르면 2019년에 수입 가능할 전망

<sup>22)</sup> IEA (2012). World Energy Outlook 2012.

## 미주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응

□ 미주의 에너지 생산 증가로 인한 석유원료 가격 하락으로 석유화학 등 제조업에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여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산업에 위협이 될 전망

- 미국의 천연가스는 셰일가스 개발 증가로 가격이 크게 하락<sup>23)</sup>하였고, 석유화학 제품의 중간원료인 에틸렌도 가격이 세계 최저 수준
  - 에틸렌 제조원가(달러/톤): 미국 316, 사우디아라비아 455, 아시아 1,717<sup>24)</sup>
- 미국은 제조원가 하락으로 인해 폴리에틸렌(PE)과 PVC 등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석유제품은 이미 순수출국으로 전환<sup>25)</sup>
- 미국뿐만 아니라 멕시코와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의 제조업 경쟁력도 강화

### 미국 석유화학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재개

- ▷ 다우케미컬, 포모사, 쉘케미컬 등 미국 석유화학 기업들은 미국 내에 석유화학 플랜트를 가동할 계획
  - 다우케미컬은 텍사스 州에 연간 150만 톤 생산규모의 에틸렌 공장 건설을 추진
  - 원료 가격 하락으로 인해 2013년 1/4분기 다우케미컬의 주당순이익(EPS)은 예상치를 상회한 46센트로 전년(35센트) 대비 31.4% 증가

□ 따라서 미주에 직접 투자해 값싼 원료를 확보하고, 신규 개발 수요가 많은 중남미 국가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

- 가격 경쟁력이 있는 북미의 석유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한화케미칼과 금호석유화학 등은 에틸렌 플랜트 투자를 통한 미국 내 생산방안을 검토<sup>26)</sup>
- 미개발 자원과 플랜트 신규 수요가 많은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생산거점 중 하나로 고려할 필요

〈以上〉

<sup>23)</sup> 미국 연평균 천연가스(Henry Hub) 가격(1백만Btu당): 8.9달러(2008년) → 2.83달러(2012년)

<sup>24)</sup> PwC (2012). Shale Gas: Reshaping the US Chemicals Industry.

<sup>25)</sup> 장선영, 권오승, 이명희 (2013). "美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및 시사점"(Global Market Report 13-013). KOTRA.

<sup>26)</sup> 박찬영 (2013). "미국 석유화학산업 동향 및 전망". 한국석유화학협회.

## 주간 금융지표

**금리 :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하락 후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으로 하락 폭 반납**

	5.06	5.07	5.08	5.09	5.10
회사채(AA-)	2.92	2.90	2.91	2.91	2.92
회사채(BBB-)	8.54	8.52	8.53	8.53	8.54
국고채(3년물)	2.56	2.54	2.55	2.55	2.55
콜금리	2.76	2.74	2.75	2.51	2.50

자료 : 금융투자협회, 한국자금중개.

**환율 : 달러는 원화, 유로화, 엔화 대비 강세**

	5.06	5.07	5.08	5.09	5.10
원/달러	1094.5	1091.4	1086.5	1091.0	1106.1
엔/달러	99.35	99.02	99.01	100.61	101.62
달러/유로	1.3076	1.3079	1.3153	1.3044	1.2993
원/100엔	1101.72	1102.26	1097.42	1084.44	1088.52

자료 : 한국은행, ECOS.; Thomson Reuters, Datastream.

**주가 : 엔화 약세 가속화에 따른 수출경쟁력 악화 우려 등으로 하락**

구 분		5.06	5.07	5.08	5.09	5.10
거래소	KOSPI(p)	1,961.48	1,954.35	1,956.45	1,979.45	1,944.75
	거래량(만주)	29,495	29,986	33,794	33,255	28,384
	시가총액(조원)	1,137	1,132	1,134	1,147	1,128
	외국인순매수(억원)	-588	-2,502	-2,676	1,403	-1,588
코스닥지수(P)		567.13	573.68	576.70	573.35	569.70

자료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 주간 경제일지

(5. 13 ~ 5. 17)

05. 13. (월)

- 해외 보도자료: 미국 4월 소매판매(상무부)  
중국 4월 산업생산(국가통계국)  
중국 4월 소매판매(국가통계국)

05. 14. (화)

- 국내 보도자료: 2013년 제8차 금통위 의사록 공개(한국은행)
- 해외 보도자료: 유로 3월 산업생산(EU통계청)  
일본 4월 기업물가(일본은행)

05. 15. (수)

- 국내 보도자료: 2013년 4월 고용동향(통계청)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기획재정부)
- 해외 보도자료: 미국 4월 생산자물가(노동부)  
미국 4월 산업생산(연준)  
유로 1/4분기 GDP성장률-잠정치(EU통계청)  
유로 4월 소비자물가(EU통계청)

05. 16. (목)

- 국내 보도자료: 2013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
- 해외 보도자료: 미국 4월 소비자물가(노동부)  
유로 3월 상품수지(EU통계청)  
일본 1/4분기 GDP성장률(내각부)  
일본 3월 광공업생산(경제산업성)

05. 17. (금)

- 해외 보도자료: 미국 경기선행지수(컨퍼런스보드)

## 주간 해외 경제일지

(5. 6 ~ 5. 10)

### 미 주

<p>5. 6. (월) · 미국: 3월 개인소비지수 전월대비 0.2% 상승, 상무부</p>
<p>5. 7. (화) · 미국: 3월 미결주택매매 전월대비 1.5% 증가, 전미부동산협회</p>
<p>5. 8. (수) · 미국: 2월 S&amp;P/CS 주택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9.3% 상승한 146.57, S&amp;P</p>
<p>5. 9. (목) · 미국: 4월 소비자기대지수 전월대비 6.2p 상승한 68.1, 컨퍼런스보드</p>
<p>5. 10. (금) · 미국: 3월 건설지출 전월대비 1.7% 감소, 상무부</p>

### 유 럽

<p>5. 6. (월) · 이탈리아: 4월 경기기대지수 전월대비 1p 하락한 87.6, 통계청</p>
<p>5. 7. (화) · 프랑스: 3월 생산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1.9% 상승, 통계청</p>
<p>5. 8. (수) · 유로지역: 3월 실업률 전월대비 0.1%p 상승한 12.1%, 통계청</p>
<p>5. 9. (목) · 그리스: 2월 소매판매액 전년동월대비 14.4% 감소, 통계청</p>
<p>5. 10. (금) · 영국: 4월 PMI제조업지수 전월대비 1.2p 상승한 49.8, Markit</p>

## 일 본

<p>5. 6. (월) · 일본: 3월 국내 CPI 전년동월대비 0.9% 하락, 총무성</p>
<p>5. 7. (화) · 일본: 4월 PMI제조업지수 전월대비 0.7p 상승한 51.1, Markit/JMMA</p>
<p>5. 8. (수) · 일본: 3월 전세대가구 소비지출 전년동월대비 5.2% 증가, 총무성</p>
<p>5. 9. (목) · 일본: 3월 소매거래지수 전년동월대비 1.4% 하락, 경제산업성</p>
<p>5. 10. (금) · 일본: 3월 자동차생산 전년동월대비 16.4% 감소, 자동차공업협회</p>

## 아 시 아

<p>5. 6. (월) · 싱가포르: 3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대비 4.1% 감소, 경제개발청</p>
<p>5. 7. (화) · 중국: 4월 제조업 PMI지수 전월대비 0.3p 하락한 50.6, 국가통계국</p>
<p>5. 8. (수) · 태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2.42% 상승, 통계청</p>
<p>5. 9. (목) · 인도네시아: 1/4분기 국내총생산 전년동기대비 6.02% 증가, 중앙통계국</p>
<p>5. 10(금) · 말레이시아: 3월 총수출 전년동월대비 2.9% 감소, 통계청</p>

◆ 거시지표 ◆

	경제 성장률	소비자 태도지수	물가		고용		금융동향					
			생산자	소비자	실업률	임금 (제조업, 실질)	통화(평잔기준)		회사채수익률 (평균)	어음부도율		주가지수
							M2	M3		전국	서울	
			전년동기대비(%)	포인트(p)	전년동월대비(%)	기간 중 평균(%)	전년동기대비 (%)	전년동기대비(%)	%	%	%	기말기준
2008	2.3	43.8	8.5	4.7	3.2	..	14.3	11.9	7.02	0.03	0.02	1,124.5
2009	0.3	49.1	-0.2	2.8	3.6	2.2	10.3	7.9	5.81	0.03	0.02	1,682.8
2010	6.3	52.2	3.8	3.0	3.7	9.1	8.7	8.2	4.66	0.03	0.03	2,051.0
2011	3.6	47.3	6.7	4.0	3.4	1.6	4.2	5.3	4.41	0.02	0.02	1,825.7
2012	2.0	44.8	0.7	2.2	3.2	6.2	..	..	3.77	0.02	0.02	1,997.1
2012. 4	2.4	46.6	1.9	2.5	3.5	6.1	5.5	8.6	4.25	0.02	0.02	1,981.9
5			1.0	2.5	3.1		5.5	8.4	4.01	0.01	0.01	1,843.8
6			-0.0	2.2	3.2		5.9	8.5	3.87	0.02	0.01	1,854.0
7			-0.6	1.5	3.1		6.0	8.4	3.60	0.02	0.02	1,882.0
8	1.6	43.6	-0.1	1.2	3.0	4.7	5.7	7.8	3.40	0.02	0.02	1,905.1
9			0.2	2.0	2.9		5.2	7.6	3.31	0.02	0.01	1,996.2
10			-0.5	2.1	2.8		4.6	7.1	3.30	0.02	0.02	1,912.1
11	1.5	44.9	-0.9	1.6	2.8	3.8	4.4	7.1	3.32	0.03	0.03	1,932.9
12			-1.2	1.4	2.9		4.5	7.3	3.30	0.02	0.02	1,997.1
2013. 1	1.5	46.4	-1.6	1.5	3.4	..	4.8	7.7	3.20	0.02	0.02	1,961.9
2			-1.6	1.4	4.0		5.3	8.1	3.06	0.01	0.01	2,026.5
3			-2.4	1.3	3.5		5.0	6.8	2.95	0.02	0.01	2,004.9
4			..	1.2	..		..	..	2.91	..	..	1,964.0

주: 회사채수익률은 AA- 기준으로 2000년 10월 이전은 A+ 기준. 생산자물가지수 및 소비자물가지수는 2005=100기준임  
 임금(제조업, 실질)은 2008년 이후 추정방법 변경 및 산업분류 개편(KSIC-9차개정)에 따라 2008~2010년 자료를 소급 적용

◆ 산업활동 ◆

	경기종합지수		소매액 지수			국내기계수주	국내건설수주	산업활동				
	선행지수	동행순환 변동치	총지수	백화점	할인점			평균 가동률	제조업생산			
									전체	반도체	자동차	선박
	2010=100 (평균)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2008	86.4	100.8	1.1	1.1	2.4	-14.9	-7.6	77.6	3.3	15.7	-3.1	22.1
2009	93.3	97.4	2.6	4.3	-2.1	-12.0	5.0	74.4	-0.2	7.5	-9.2	13.0
2010	100.0	100.7	6.7	8.8	4.5	8.0	-17.7	80.3	16.7	38.2	19.9	-7.8
2011	102.4	101.0	4.5	7.7	5.6	7.6	6.1	80.2	6.0	27.0	11.1	2.9
2012	107.2	99.7	2.3	1.8	2.0	-13.4	-8.9	78.1	0.8	8.2	-3.2	4.9
2012. 3	105.7	100.2	1.1	3.0	6.4	-23.6	-12.8	78.7	0.5	5.4	3.5	0.0
4	106.2	100.0	0.4	-0.2	2.8	-4.4	-10.1	79.0	-0.4	-3.7	-1.3	0.8
5	106.3	99.7	2.7	2.9	1.4	-14.4	0.9	79.5	3.1	2.0	1.5	12.0
6	107.4	99.7	1.2	1.3	-0.1	-35.4	3.7	78.4	0.6	2.6	-3.0	0.7
7	108.0	99.8	3.8	4.2	0.1	-9.4	23.1	77.8	-0.3	-7.5	-10.8	7.7
8	108.1	99.3	1.1	-1.9	3.0	-13.8	-32.4	74.0	-2.1	11.8	-29.7	6.3
9	108.0	99.3	3.1	1.5	4.1	-8.1	-19.7	76.7	-0.8	0.0	-11.4	12.7
10	108.3	98.9	1.6	-2.8	-3.3	-20.8	-26.6	77.0	-1.9	5.9	-4.8	6.1
11	109.1	99.1	4.3	13.3	5.0	-26.4	-20.0	78.0	2.1	25.4	3.5	5.4
12	109.9	99.2	2.2	0.9	1.6	-17.0	-43.0	78.4	-0.4	30.0	-4.9	7.7
2013. 1	110.1	99.2	-2.7	-7.4	-16.6	-3.6	-52.7	78.6	7.7	26.7	23.9	31.8
2	110.4	99.3	1.7	1.0	8.3	-32.0	-47.0	77.6	-9.4	7.8	-17.4	-6.6
3	110.7	98.9	1.7	6.9	0.5	21.1	-24.1	75.7	-3.0	14.6	-12.3	-1.6

주: 2008년 1월부터 현행 2000년 기준지수를 2005년 기준으로 변경

◆ 대외거래 ◆

	전체 수출입(통관기준)				주요 지역별 수출								순상품 교역지수 (증감률)
	수출		수입		對美		對아시아		對中		對EU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백만 달러 (In Million dollars),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08	422,007	13.6	435,275	22.0	46,377	1.3	214,051	13.4	91,389	11.5	58,375	4.3	-13.8
2009	363,534	-13.9	323,085	-25.8	37,650	-18.8	190,761	-10.9	86,703	-5.1	46,608	-20.2	9.9
2010	466,384	28.3	425,212	31.6	49,816	32.3	255,178	33.8	116,838	34.8	53,507	14.8	-0.3
2011	555,214	19.0	524,413	23.3	56,208	12.8	314,006	23.1	134,185	14.8	55,727	4.2	-10.9
2012	547,870	-1.3	519,584	-0.9	58,525	4.1	318,235	1.3	134,323	0.1	49,371	-11.4	-2.4
2012. 3	47,330	-1.5	45,053	-1.1	5,935	27.8	27,042	0.2	11,043	-4.1	4,351	-20.5	-6.6
4	46,095	-5.0	43,957	-0.5	5,307	4.2	24,837	-5.9	10,464	-3.2	4,220	-20.9	-7.5
5	46,872	-1.0	44,480	-1.8	4,727	-8.6	26,372	0.0	10,716	-5.1	4,571	-0.8	-3.2
6	47,163	0.9	41,994	-6.3	4,977	0.2	26,499	3.3	10,829	-2.7	4,082	-20.2	-2.7
7	44,668	-8.7	41,977	-5.2	4,692	0.9	26,348	-7.0	11,247	-4.9	3,772	-10.5	1.2
8	43,045	-6.0	41,116	-9.4	4,222	-2.3	25,245	-6.5	11,062	-4.8	4,322	2.9	2.1
9	45,413	-2.4	42,560	-6.0	4,814	0.4	26,833	0.2	11,783	1.0	4,302	-6.0	-0.0
10	47,088	1.0	43,380	1.6	4,439	-3.6	28,343	5.9	12,461	5.2	4,039	2.4	-0.3
11	47,805	3.9	43,382	0.9	5,114	-5.3	29,584	11.9	12,429	11.0	3,466	-14.0	-0.4
12	44,875	-6.0	43,069	-5.3	4,555	-1.0	27,526	0.7	11,994	2.7	3,792	-8.5	2.7
2013. 1	45,700	10.9	45,229	3.9	5,005	21.4	26,358	11.0	11,421	16.6	3,762	-3.3	-0.1
2	42,327	-8.6	40,307	-10.6	4,972	-11.5	24,148	-6.6	10,393	-1.0	3,864	-15.3	-0.2
3	47,437	0.2	44,149	-2.0	4,981	-16.1	28,069	3.8	11,704	6.0	3,987	-8.4	2.3

◆ 국제수지 및 외환 ◆

	경상수지				자본수지			외환 보유액	환율		총대외지불부담	
	경상 수지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소득 수지	자본 수지	직접 투자	증권 투자		원/달러	원/엔	총외채	순채권
	백만 달러 (In Million dollars)								기말기준		억 달러(기말기준)	
2008	3,197.5	5,170.1	-5,734.1	4,435.4	109.3	-16,940.4	-2,405.6	201,223	1,257.5	1,393.89	3,173.7	245.5
2009	32,790.5	37,866.0	-6,640.5	2,276.7	289.6	-14,948.0	49,727.7	269,995	1,167.6	1,262.82	3,456.8	690.0
2010	29,393.5	40,082.5	-8,626.0	1,015.9	-217.9	-22,184.3	42,479.8	291,571	1,138.9	1,397.08	3,597.6	913.0
2011	26,068.2	31,660.0	-5,849.5	2,890.9	-24.7	-16,410.0	13,109.3	306,402	1,153.3	1,485.16	3,987.2	979.6
2012	43,138.5	38,337.7	2,676.2	4,885.5	602.1	-18,628.1	10,114.8	326,968	1,071.1	1,247.50	4,134.4	1,224.6
2012. 4	1,734.0	1,750.8	549.7	-422.0	102.3	-940.4	-2,213.3	316,837	1,134.2	1,412.01		
5	3,574.9	1,715.9	1,593.0	341.6	144.2	-1,382.0	-937.1	310,872	1,177.8	1,489.10		
6	5,879.9	5,053.8	170.0	901.8	37.8	-692.8	-2,330.9	312,378	1,153.8	1,453.79	4,157.7	929.4
7	6,144.3	5,340.6	593.3	401.9	36.3	-1,443.6	2,529.2	314,348	1,136.2	1,453.59		
8	2,504.3	2,514.0	-262.2	435.5	8.0	-1,607.1	580.9.	316,885	1,134.6	1,443.97		
9	5,913.1	5,486.6	323.3	203.9	32.4	-2,378.2	2,668.7	322,015	1,118.6	1,441.12	4,193.8	1,072.1
10	5,781.7	5,168.9	378.3	521.9	-6.1	-975.0	-4,657.2	323,461	1,094.1	1,374.50		
11	6,906.2	6,777.4	-51.6	374.3	5.8	-1,336.2	-3,875.8	326,091	1,084.7	1,320.55		
12	2,140.2	1,917.3	30.8	639.0	107.1	-669.5	3,194.2	326,968	1,071.1	1,247.50	4,134.4	1,224.6
2013. 1	2,331.7	2,617.7	-927.1	968.4	48.5	-1,417.7	-4,374.3	328,910	1,082.7	1,188.47		
2	2,712.9	2,562.9	-461.0	628.9	37.8	-777.8	1,993.5	327,395	1,085.4	1,176.20		
3	4,978.5	4,210.4	905.2	-222.3	65.7	-1,870.4	-3,389.1	327,408	1,112.1	1,180.13	..	..
4	..	..	..	..	..	..	..	328,800	1,108.1	1,132.04		

### 《 주요국 통계 》

[미국]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sup>1)</sup>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sup>2)</sup>	주가(기말) <sup>3)</sup>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08	-0.3	-3.5	3.8	5.8	13,075	25,410	-6,771	0.25	8776.4
2009	-3.1	-11.4	-0.3	9.3	10,697	19,581	-3,819	0.25	10428.1
2010	2.4	5.4	1.6	9.6	12,889	23,372	-4,420	0.25	11577.5
2011	1.8	4.1	3.1	8.9	14,974	26,632	-4,659	0.25	12217.6
2012	2.2	3.8	2.1	8.1	15,641	27,340	-4,750	0.25	13104.1

주: 1) 전년동기대비, 2) 연방기금금리, 3) 다우지수

[일본]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sup>1)</sup>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sup>2)</sup>	주가(기말) <sup>3)</sup>
	%	%	%	%	백억엔	백억엔	백억엔	%	
2008	-1.0	-3.4	1.4	4.0	8,102	7,895	1,677	0.1	859.2
2009	-5.5	-21.8	-1.3	5.0	5,417	5,150	1,376	0.1	907.6
2010	4.7	16.6	-0.7	5.1	6,740	6,076	1,788	0.1	898.8
2011	-0.6	-2.3	-0.3	4.6	6,555	6,808	955	0.1	728.6
2012	2.1	-1.0	0	4.4	6,374	7,067	462	0.1	859.8

주: 1) 전년동기대비, 2) overnight call, 3) TOPIX

[유로지역]

	성장률(실질)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sup>1)</sup>	주가(기말) <sup>2)</sup>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2008	0.3	-2.3	3.3	7.6	15,771	16,151	-1,423	2.50	2451.5
2009	-4.4	-13.7	0.3	9.6	12,800	12,682	-211	1.00	2966.2
2010	2.0	4.1	1.6	10.1	15,338	15,519	-20	1.00	2792.9
2011	1.5	2.6	2.7	10.2	17,452	17,598	89	1.00	2316.5
2012	-0.5	-2.9	2.5	11.4	18,697	17,899	1,161	0.75	2660.0

주: 1) 단기공개시장조작금리(기말), 2) 다우존스 Euro Stoxx 50지수

[독일]

	성장률(실질)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sup>1)</sup>	주가(기말) <sup>2)</sup>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2008	0.8	0.0	2.6	7.6	9,816	8,052	1,620	0.86	4810.2
2009	-5.1	-15.5	0.3	7.7	8,018	6,642	1,366	0.28	5957.4
2010	4.0	10.1	1.1	7.0	9,464	7,946	1,496	0.31	6914.2
2011	3.1	8.0	2.1	6.0	10,567	9,005	1,574	-0.18	5898.4
2012	0.9	-0.8	2.0	5.5	10,996	9,103	1,385	-0.05	7612.4

주: 1) 3개월만기국채수익률, 2) DAX 지수(1987.12.30=1,000)

[영국]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sup>2)</sup>	주가(기말) <sup>3)</sup>
	%	%	%	%	억파운드	억파운드	억파운드	%	
2008	-1.0	-2.7	3.6	5.6	2,521	3,462	-183	2.0	4434.2
2009	-4.0	-9.1	2.2	7.5	2,281	3,110	-172	0.5	5412.9
2010	1.8	2.2	3.3	7.9	2,657	3,642	-370	0.5	5899.9
2011	0.9	-0.8	4.5	8.0	2,991	3,993	-300	0.5	5572.3
2012	0.2	-2.3	2.8	8.0	3,005	4,068	-496	0.5	5897.8

주: 1) 영란은행 RP 금리, 2) FTSE 100지수

[프랑스]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sup>1)</sup>	주가(기말) <sup>2)</sup>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2008	-0.2	-2.8	2.8	7.8	4,194	4,751	-356	1.66	3218.0
2009	-3.0	-12.6	0.1	9.6	3,469	3,920	-244	0.36	3936.3
2010	1.6	4.7	1.5	9.7	3,913	4,440	-300	0.40	3804.8
2011	1.7	1.7	2.1	9.6	4,266	5,009	-418	0.01	3159.8
2012	0.1	-2.2	2.0	10.3	4,440	5,113	-340	0.03	3641.1

주: 1) 3개월만기국채수익률, 2) CAC 40 Index(1987. 12. 31=1,000)

[중국]

	성장률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 <sup>1)</sup>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sup>2)</sup>	주가(기말) <sup>3)</sup>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08	9.1	12.8	5.9	4.1	14,287	11,315	4,124	5.31	1820.8
2009	8.5	12.2	-0.7	4.3	12,020	10,039	2,610	5.31	3277.1
2010	10.4	14.5	3.3	4.2	15,784	13,939	2,376	5.81	2808.1
2011	9.3	13.8	5.4	4.1	18,993	17,416	2,017	6.56	2199.4
2012	7.8	10.0	2.7	4.1	20,501	18,173	2,138	6.31	2269.1

주: 1) 전년동기대비, 2) 1년만기 대출금리, 3) 상해 종합주가지수

[대만]

	성장률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 <sup>1)</sup>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sup>2)</sup>	주가(기말) <sup>3)</sup>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08	0.7	-1.8	3.5	4.1	2,556	2,405	275	2.00	4591.2
2009	-1.8	-8.1	-0.9	5.9	2,037	1,744	429	1.25	8188.1
2010	10.8	26.9	1.0	5.2	2,746	2,514	399	1.63	8972.5
2011	4.1	5.0	1.4	4.4	3,084	2,816	416	1.88	7071.1
2012	1.3	-0.1	1.9	4.2	3,011	2,707	320	1.88	7699.5

주: 1) 전년동기대비, 2) 재할인율, 3) 가권지수